



#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HICAGO AREA EPISCOPAL OFFICE

77 West Washington Street • Suite 1820 • Chicago, Illinois 60602  
Office: (312) 334-0702

Sally Dyck  
Bishop

E-mail: [bishop.dyck@umcnic.org](mailto:bishop.dyck@umcnic.org)

Rev. Arlene W. Christopherson

Assistant to the Bishop/Director of Connectional Ministries

E-mail: [achristo@umcnic.org](mailto:achristo@umcnic.org)

Ordinary Time (평상절: 성장을 위한 평상시)?

2020 년 8 월

삶 속에서 달콤하다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휴가를 가기 전에 일터에서 마지막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그런 때입니다. 휴가 전체가 여러분의 앞에 펼쳐집니다. 더할 나위없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집 청소를 마치고 깨끗해진 아주 짧은 순간, 아무도 움직이거나 걷거나 앉거나 어질러 놓지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를 들면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들립니다. 전세계, 우리나라, 우리 자신의 공동체와 삶에서 일어나고있는 모든 일들에 비추어 볼 때, 이것들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 일들처럼 보입니다 : 누가 휴가를 간다거나 최소한 멀리 떠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집을 청소하는 편안한 시간과 에너지도 별일이 아닙니다 . 우리 삶 속의 이런 일들은 세상의 모든 더 무거운 문제들과 비교할 때 하찮게 보입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 평범한 일들처럼 보입니다.

교회절기중에서 지금 우리는 평상절중에 있습니다. 저는 평상절이란 개념뿐만 아니라 용어에 대해 항상 의아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나 주현절을 준비하는 강림절이나 혹은 부활절과 오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강림절이 시작되는 시기에 따라서 평상절은 여름을 지나서 추수 감사절이후의 가을까지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적어도 개신교 교회에는 축일이나 휴일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이 All Saints Day정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평상절이 일상적인 평범한 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의 개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을 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평상이란 말의 어원은 "차례를 세는 " 또는 "계산 된 주" 라는 뜻에서 유래 한 것이며, 평상절의 경우는 오순절과 재림절 사이의 시간을 세어서 계산 된 주 (weeks)들입니다.



평상절은 평범한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계산을 해서 표시해놓은 시간들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예배 할 수 있는 시간, 마스크 쓰지 않고 집을 떠날 수 있는 시간,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 할 수 있는 시간을 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에 걸릴 염려가 없고 병에 걸리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학생이나 회의 (일반, 관할, 연례, 심지어 교회 회의)를 할 수 있는 . 정상적인 시간. 저는 평상절이 이런 정상적인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일, 기념일, 졸업식, 은퇴일 등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계산하고 계세요? 저는 항상 뮤지컬, Rent,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생각해봅니다.

오백 이만 오천 육백 분

오백 이십오 만 순간 이어

오백 이만 오천 육백 분

1 년을 어떻게 측정하고 측정합니까?

일출속에서, 일몰속에서

한밤중에, 커피 한잔속에서

인치, 마일, 웃음, 갈등속에서

오백 이만 오천 육백 분

일 년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계절...

우리는 정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 전 1년 동안의 시간을 흔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는 우리가 단지 "시간"을 표시 해놓고, 시간을 허비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그러므로 우리 삶이 그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평상절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리마인드 시켜줍니다. 평상절은 우리가 재림절 / 크리스마스 / 주현절, 그리고 사순절 / 부활절 / 오순절의 사이에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을 세어보는 시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저 표시해 놓기만 한다면 많은 시간과 믿음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Rent의 노래는 사랑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상기시켜줍니다.

더 이상 자택 격리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세상이나 친구, 가족, 교회, 지역 사회 및 모든 관계는 여전히 다소 제한적일 것입니다. 올해의 척도 (그리고 적어도 1년이 될 수 있음)는 우리가 이 시간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어떻게 사용 했는지가 될 것입니다.

약간 시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책에는 "Covid-19"이라고 표시된 특별한 페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쓰여질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 삶과 믿음을 만들었습니까? 새로운 습관이나 실천은 무엇입니까? 5개월 전보다 지금 어떤 관계가 더 나아졌습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교회에서 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결코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점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은 이런 질문들을 사랑과 행동으로 행하는지 측정하고 평가하는 시간들입니다.

예, 저 역시 정상적인 시간이 오길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적인 시간은 교회달력의 한 부분이 아니며 결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평상절은 우리가 기다리는 정상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절은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위한 신령한 성령의 부르심의 시간이며 또한 우리가 훨씬 더 넓고 길고 높고 깊은 믿음과 은혜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 16-19)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 20-21)  
Amen!

  
Bishop Sally Dyck